농업정책자금 금리 낮춰 농가 부채부담 줄여야

대출 이자 10년째 3%… 시중 4%대 저금리와 별차이 없어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0년째 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의 농가부채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2603만5000원 보다 4.7% 증가한 2726만2000원으로 이중 농업용 부채는 1315만3000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그런데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5년이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2008년 7.19%에서 올 6월말 현재 4.1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업 유관단체 등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3%를 유지하고 있는 이자율을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황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이후 지금까지 시중금리와 정책자금간 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2008년 4.19%에서 1.11%로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대출자금이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그 대안으로 이차율 고정방식을 제안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차보전사업 예산 3702억원 중 65.1%인 2410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19억원은 이월, 273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그런데 이월금액을 지난해말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3조716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0.5%씩 대출금리를 낮추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23조7169억원에서 이자율 0.5%를 곱하면 약 1186억원이 나온다.

따라서 황 의원은 1%를 낮추면 2372억원, 2%를 낮추면 4743억원 등 대출이자만 줄여도 농가 부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줄 경우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가부채를 걱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 있다면 이차보전방식을 바꾸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가 정책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올 뉴 쏘울' 사전 계약

기아자동차가 14일부터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는 쏘울 후속모델 '올 뉴 쏘울'의 사전계약에 들어간다.

22일 출시 예정인 '올 뉴(All New) 쏘울'은 18인치 체인저블(Changerble) 컬러 휠과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시스템(Advanced SPAS) 등 개성 넘치는 편의사양 및 디자인을 대거 채용했다. '올 뉴 쏘울'은 세계 최초로 기본 컬러인 회색의 휠 커버 외에 레드와 블랙 2종의 휠 커버를 추가 제공해 고객이 취향에 따라 휠 커버 색깔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18인치 체인저블 컬러 휠'을 적용했다.

또 초음파 센서로 주차가 가능한 영역을 탐색한 후에 스티어링 휠을 자동으로 제어해 평행주차뿐만 아니라 직각주차까지 도와주는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시스템'을 기아차 최초로 적용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외에도 앞유리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로 전방의 차선을 인식해 차선이탈 시 사전에 경고해주는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S)'과 탁월한 개방감을 제공하는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올 뉴 쏘울'의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1.6 가솔린 모델은 ▲럭셔리 1595만원 ▲프레스티지 1800만원 ▲노블레스 2015만원이며 1.6 디젤 모델은 ▲프레스티지 1980만원 ▲노블레스 2105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7일 사랑나눔 바자회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오는 17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하남공단 8번로)에서 '2013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소기업 사랑나눔바자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기업체로부터 기증받은 의류와 식품, 잡화 등의 품목을 염가로 판매하고, 거둬들인 바자회 수익금은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물품 확보 및 성금을 모금을 15일까지 진행하며 참여 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연락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소재 활용 기능성 의류 1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8층 아동복 매장 '무냐무냐'에 미국 NASA에서 개발한 신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이너웨어 '골드라벨'이 선보여 인기다. 이 제품의 가격은 상하의 한 세트에 10만5000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자영업자 56% 월 100만원도 못 벌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6702명의 56%에 해당하는 221만5754명이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이는 2011년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215만7612명보다 5만8142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개인사업자의 4%인 15만827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이낙연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9월 무역수지 37억달러… 20개월째 흑자

선박·반도체·가전제품 수출 늘어

무역수지가 20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447억900만 달러로 전달보다 3.4% 줄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했다. 수입은 410억28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1%, 작년 같은 달보다 3.6% 각각 빠졌다.

이에 따라 9월 무역수지는 36억8천1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작년 2월 이후 흑자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석유제품(-13.3%), 승용차(-12.8%), 무선통신기기(-12.1%), 철강제품(12.0%), 화공품(-1.3%)의 수출은 줄고, 선박(72.4%), 반도체(21.1%), 가전제품(14.8%)의 수출은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5.1%), 중국(1.4%)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호주(-18.7%), 유럽연합(-8.9%), 미국(-1.6%), 일본(-1.5%), 동남아(-0.9%)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소비재가 1.2% 증가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원자재(-6.6%) 수입은 감소했고 자본재(1.4%) 수입은 소폭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 수출은 4133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 늘었고, 수입은 3823억 달러로 1.9% 감소했다. 누적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10억 달러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2020.27 (-4.63)	▼ 531.66 (-0.94)	▲ 2.88% (+0.02)	▲ 1071.50원 (+0.10)

올 상반기 보험 사기액 2600억원

전년동기비 15% 늘어 허위·과다 사고 많아

보험 사기가 지능화, 조직화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2237억원)보다 15.3% 늘었다. 적발 인원은 4만1953명으로 전년 동기(4만54명)에 비해 4.7%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적발액이 1834억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410억원, 15.9%), 피해 과장(138억원, 5.3%)이 뒤를 이었다.

허위·과다사고 중에서도 사고내용 조작(439억원, 17.0%), 음주·무면허 운전(317억원, 12.3%), 운전자 바꿔치기(263억원, 10.2%) 등의 비중이 높았다.

보험 종류 별로는 자동차 보험(1436억원, 55.7%), 장기손해보험(682억원, 26.4%), 보장성 생명보험(328억원, 12.7%) 순으로 적발됐다.

기획조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의 제보, 보험사의 인지 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보험 사기액은 477억원(5195명)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기액은 2102억원(3만6758명)이었다.

보험 사기자 직업은 무직·일용직(19.2%, 8058명), 회사원(15.9%, 6682명)이 가장 많았고 운수업종사자(2304명)와 운동선수(68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2.4%, 209.1%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1만1413명, 27.2%), 30대(1만444명, 24.9%), 50대(9970명, 23.8%) 순으로 적발됐다. 60대(3009명)와 70대(624명)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8%와 44.8% 급증한 점이 눈에 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허위·과다 사고가 많이 적발됐으며 실제 운전을 하는 운수업종사자의 사기도 크게 늘었다"면서 "운동선수 사기자 급증은 보험사들이 미신고했던 부분을 올해 반영한데 따른 것이며 70대 노인이 늘어나는 등 연령별로 보험사기가 평준화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